**데이비드 터너 박사, 마태   
복음 강의 7A – 마태복음 13:53-15:39: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강화하심**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터너입니다. 7a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마태복음 본문의 꽤 큰 부분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제자도가 강화되고 반대가 계속되는 이 시기에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15장 39절까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먼저 이 구절을 다음 이야기의 맥락에 맞춰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방금 마태복음 13장의 세 번째 담화, 즉 천국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끝부분, 53절부터 시작하여 17장 27절까지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사 블록 소개,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17장 27절까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7장 27절은 세 번째 담화와 네 번째 담화 사이의 서사 블록으로, 이 복음서에서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에 의존한다고 믿는 학자들의 통념은, 이 시점에서 마태가 예수 전승에 대한 특유의 주제별 배열을 중단하고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가복음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뿐입니다. 마태가 이 서사 블록에서 자료를 구성하는 방식이 이전만큼 꼼꼼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가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점점 더 양극화되는 모습을 전달하고자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인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견해(16장 13절부터 16절까지)와 제자도에 대한 참된 견해(16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대조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 예수님께서 당하실 궁극적인 운명(16장 21절)과 다른 주요 수난 예언들(17장 9절, 12절, 22절, 23절, 20장 17절부터 19절, 그리고 21장 39절)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약 16개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30페이지에 있는 이 강의 개요 외에도 유인물 자료, 즉 보충 자료를 보시면, 31페이지에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17장 27절까지의 핵심 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갈등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신 부분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살펴보시고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계속 반복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다루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신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불신은 언제나 슬픈 일이지만, 이번 경우는 특히 더 안타깝습니다. 예수님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옛 인연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는 큰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전 동료들은 예수님의 겸손한 시작을 기억했기에 그분의 메시아적 지위와 사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질투심이 섞인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속담처럼 성공하는 작은 마을 소년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제쳐두더라도,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겸손하고 평범한 혈통과 특별하고 강력한 사역의 이례적인 면만을 두고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익숙함은 경멸을 낳는다"라는 말이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사렛의 불신앙은 이스라엘 전체의 불신앙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존경받지 못하십니다. 분명히 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 군사적 정복자, 예수님처럼 미천한 출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메시아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높은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사실조차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 것은 무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불신 때문에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회의론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요란한 술책을 쓰거나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12장 19절과 12장 38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초반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는 비유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예언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다른 비유들을 말씀하시자마자, 그 비유가 자신의 고향에서 얼마나 슬픈 진실인지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자라신 사람들은 13장 54절과 56절에서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왕국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길가의 다져진 땅에 뿌려져 새나 사탄에게 먹혀 싹도 틔지 못한 씨앗의 경우와 같은 맥락에서 그들을 식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134절과 19절). 하지만 나사렛에도 좋은 땅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천국의 비밀을 받은 몇몇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13:11). 이제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또 다른 매우 슬픈 이야기인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헤롯 왕조의 폭력적인 역사가 계속됩니다. 헤롯 대왕의 악행은 고대 역사와 마태복음 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티파스는 아버지의 아들임이 드러나지만, 자신의 성급한 약속으로 저지른 악행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안티파스는 나약하고 비참하며 비열한 인물로, 복수심에 불타는 아내가 딸에게 한 제안으로 인해 그의 사악한 변덕이 촉발됩니다.

플럼트리는 마태복음에 대한 주석을 썼는데, 그 안에 자주 인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헤롯도 자신이 약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급한 약속의 오류를 겸손히 인정하는 대신, 하나님의 예언자를 파멸시킴으로써 자신의 체면을 세웠습니다.

그의 궁궐 손님들은 부패한 권력과 행위의 노골적인 본보기를 보지만, 헤롯은 하나님의 사자를 배척하고 파괴한 악한 통치자들의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마태복음에서 안티파스가 요한을 처형한 것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데 이어집니다. 이 두 가지 연속적인 사건은 서로 다른 두 상황에서 불신앙을 강조하지만, 공통된 주제는 하나님의 사자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유사한 대우는 마태복음 11장 18절과 19절에 암시되어 있으며, 17장에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마태복음 11장 11절).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두려움 없이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안티파스는 요한의 처형과 시신 모독을 명령했던 그의 생일 잔치에서 소위 왕으로 불렸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만왕의 왕 앞에 서서 왕의 선구자를 잔혹하게 대했던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이 부분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키우시는지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므로,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을 제대로 장사 지낸 행동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읽혀야 합니다.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며(17:12), 요한의 제자들이 여기서 한 행동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본보기가 됩니다(27:57-61).

안티파스가 요한의 목을 베기를 꺼린 것조차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꺼린 것(27:18 이하)을 예고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요한과 예수의 유사성은 놀라울 정도로 깊어서, 데이비스와 앨리슨 같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기독론적 비유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천 명을 먹이신 사건(14:13부터 2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향한 연민으로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결론을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은 또한 예수님의 왕국 권위와 사람들이 그분을 믿도록 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적에 대한 이러한 직접적인 해석 외에도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제시되었습니다.

바클레이는 이 기적을 예수님의 본보기의 힘에 힘입어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을 자발적으로 나누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얼마 안 되는 음식을 가져다 가 나누어 주기 시작하십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하니,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따라서 이 기적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르면서 이기심이 관대함으로 극복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해석에서 도출되는 건전한 교훈에도 불구하고, 주해적으로는 뒷받침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이 가진 얼마 안 되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기적적으로 배가되어 약 2만 명의 군중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더 가져왔다는 언급이나 이기심이 관대함으로 바뀌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이것은 관대함에 대한 우화가 아니라 기적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 구절의 성찬례적 함의를 강조하며 이를 성찬례의 우화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과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9절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명확한 언어적 유사점이 있어 두 구절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최후의 만찬과 그 이후의 기독교 성례전 이야기를 배고픈 사람들이 기적으로 음식을 먹은 이 이야기로 다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 기적의 역사성이 의심스럽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마태는 독자들이 이 이야기를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으로 먹이신 사건을 연상하게 하려고 의도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신명기 8장, 그리고 다른 구절들을 보십시오. 8장 11절과 26장 29절에 암시된 종말론적 메시아 만찬을 예고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독자들이 엘리야(열왕기상 17장)와 엘리사(열왕기하 4장)의 사역을 떠올리기를 의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모세,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 기적적으로 백성의 필요를 채워 주셨듯이,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확실한 선지자이자 교사인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발전시키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바로 연민과 믿음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차갑게 내쫓으려 할 때, 예수님은 연민 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이 빈약한 자원이 필요를 채우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자비로운 본보기를 따라 사역을 수행하고, 그분의 능력을 통해 자원을 배가시키시는 능력을 믿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기독론과 제자도: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은 오천 명을 먹이신 사건 직후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능력에 초점을 맞춘 이 두 이야기는 불신앙을 강조하는 앞선 두 에피소드에 반가운 안도감을 줍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적 능력은 구약성경의 배경과 대조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특권입니다.

욥기 26장 11절과 12절, 시편 65장 7절, 89장 9절과 10절, 그리고 다른 구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들은 예수님께서 11장 25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과 동등한 지위를 지닌 분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14장 3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아들 되심을 예배하고 간증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신성한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동방박사, 나병환자, 회당 관리, 가나안 여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 등 여러 사람에게 여러 차례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영어 성구사전이나 그리스어 성구사전에서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를 찾아 보면, 단순히 윗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일 뿐, 신에 대한 종교적 경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결론을 내리려면 이 구절들을 그 맥락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 구절의 이해에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14장 15절의 먹이신 기적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암묵적으로 도전받았지만, 폭풍 기적은 그들에게 직접적인 도전을 제시하고, 더 강한 믿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14장 31-33절에서 그들의 감동적인 고백을 위한 계기를 제공합니다. 이 두 번째 폭풍 기적은 첫 번째 기적과 마찬가지로 삶의 시련 속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기적은 베드로를 모범적인 제자, 곧 동등한 제자들 중 으뜸가는 제자로 묘사합니다(14:28-30). 베드로의 행동은 제자들의 고백으로 이어지고(14:33), 이는 16:16을 예고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성공한 것보다 믿음이 부족하여 실패한 것은, 당시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 본보기가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요약하자면, 1353년의 특징적인 전환 이후, 마태는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를 떠나 예수님의 사역의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 도착하시지만,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존중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헤롯에게 전해지자, 헤롯은 예수님을 요한 레디비부스, 즉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의 순교 소식을 듣고 외딴곳으로 물러가셨지만, 무리가 따라와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후 두 번째 폭풍이 몰아치고 게네사렛에서 많은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특징짓는 한 가지 주제는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셨다는 것인데, 이 배척은 이제 나사렛에서도 일어납니다.

또 다른 충격은 요한의 끔찍한 순교에서 비롯되는데, 이로 인해 예수님은 대중의 시선에서 물러나십니다. 그러나 치유를 요구하는 군중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다른 폭풍으로 시험을 받을 때에도 믿음을 거의 나타내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언을 반복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반대가 커지는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기적과 제자들의 약하지만 진실하고 성숙해진 믿음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1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구조는 15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서 시작하여 15장 3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돌아서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15장 10절과 11절에서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의 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은 먼저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시고, 15장 11절의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15장 15절에서 20절까지 군중에게 설명하십니다. 이 구절은 1. 예수님의 원수인 바리새인들, 2. 예수님을 매우 피상적으로 바라보는 군중, 그리고 3.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틀리지만 진실된 이해)로 이어집니다. 이 구절은 포괄성, 즉 책받침이 있는 구절이며,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에 대한 내용(15장 2절과 15장 20절)으로 시작하고 끝맺습니다. 이제, 구전과 기록된 토라 속의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의 전통, 모세의 율법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15장 3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기 때문에 장로들의 전통을 분명히 제쳐두셨지만, 구약의 식생활 법,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도 똑같이 하십니까?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하는 사람들은 15장 11절과 17절을 강조하여 예수님께서 음식이 사람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을 단호히 부인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또한 마태복음에서 의문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마가복음 7장 19절의 “그분은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셨다”는 편집자의 논평에서 명확해진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7절을 고려할 때, 마태가 예수님께서 구약의 핵심 율법을 그렇게 갑작스럽고 쉽게 무시하신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다소 단순하고 주제넘은 일이 아닐까요? 데이비스, 앨리슨, 오버먼과 같은 사람들은 마태가 예수가 구약의 식생활 율법을 폐지했다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학자들은 마가복음의 우선권을 주장하며, 마태가 마가복음 7장 19절 하반절에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선언한 부분을 생략함으로써 마가복음의 해석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주장은 마태복음 15장 11절이 권고적이며, 그 반대 명제는 산문적인 명제가 아니라 수사적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는 본문의 틀을 형성하는 2절과 20절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의견 차이를 강조한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예수께서는 손 씻기에 관한 그들의 전통의 타당성을 부인하셨을 뿐, 식생활 규례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15장 11절의 불가사의한 말씀이 종종 식생활 규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식생활 규례가 아닌 바리새 전통의 관점에서 해석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면 무엇이든 제거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발언에서 그는 더럽히는 죄를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과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과 대조합니다. 따라서 마태가 독자들이 예수님께서 단순히 음식 율법을 폐지하셨다고 단순하게 결론짓기를 의도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카슨은 마태복음 5장 17-48절이 15장 1-20절 해석의 열쇠라고 지적한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으며, 그렇게 하심으로써 율법을 명확하게 가르치시고 그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더러움은 마음의 문제임을 지적함으로써 구약의 식생활 규례를 실천합니다. 결국 마태복음 15장 11절이 구약의 식생활 규례에 미치는 함의는 사도 교회에서도 인정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베드로의 경험, 로마서 14장에서 약한 자와 강한 자에게 한 바울의 권고, 그리고 아마도 골로새서 2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해 하신 가르침을 암묵적으로 수수께끼 같은 방식으로 서술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손 씻기 전통보다는 내부 윤리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원칙은 분명하지만, 마태 공동체는 토라의 궁극적인 스승이신 예수께서 제기하신 더 깊은 윤리적 고민을 상기시키는 구약의 음식 규례를 계속 실천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5장 21-28절에서 예수께서 이방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구절에는 예수께서 가나안 여인의 간청에 세 번,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번 응답하시는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의 요청은 예수께서 여인에게 첫 번째로 응답하신 후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15장 22-23절에서 그녀를 무시하십니다. 두 번째 응답은 아마도 그 여자에게, 아니, 어쩌면 그 여자보다 제자들에게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그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단호하게 부인하십니다. 이번에는 예수님 앞에 절하는 것으로 그녀의 간청을 강조하는 세 번째 응답은 직설적이고 심지어 잔인하기까지 한 언어를 사용합니다(15:25-26). 그 여자의 마지막 간청은 놀라운 겸손과 통찰력을 보여주며, 예수님께 아이들의 빵 조각을 허락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큰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반복되는 요청과 응답은 독자에게 극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 앞에 추가적인 장애물을 제시하실 때마다, 결국 그녀의 믿음이 승리한다는 사실은 더욱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 자, 이 구절에는 예수님과 이방인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만을 섬겼다는 것은 이미 분명하게 드러납니다(9:35-36, 10:5-6). 그러나 마태복음 8:5-13에서 이 규칙에 대한 적어도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예외가 이미 있습니다. 바로 로마 장교의 하인을 고치신 일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전과 현재의 이방인 사역 사례가 모두 예외적인 믿음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8:10, 15:28). 두 사례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한 요청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두 사례 모두 식탁 교제를 통해 축복을 언급하며, 식탁 교제는 이스라엘의 우월성을 통해 묘사됩니다.

로마 관리는 유대 족장들과 식탁에 앉기를 고대했을 것이고 , 이 여인은 아이들이 남긴 빵 조각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8장 11절에서 식탁의 언어는 분명히 종말론적이며, 마태복음 15장 12장 28절에서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도 암묵적으로 종말론적입니다. 26장 29절에 따르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언어 역시 종말론적 맥락을 지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식사,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기독교 성찬 예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종말론적 만찬을 예견합니다. 데이비스와 앨리슨은 이 구절이 이스라엘의 선택에 대한 성경적 교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옵니다(요 4:22). 마태복음 28장 18-20절에 결론이 나오는 교회의 세계 선교는 다니엘 7장 13-14절을 반영하는 언어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이 세계 선교는 이전의 이스라엘 선교와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확장합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언약적 약속에 가까워졌다는 바울의 견해에 동의할 것입니다(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 마태와 바울의 견해가 모두 나오는 언약적 언어는 분명히 창세기 12장 3절이며, 아브라함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두 번째 기적의 식사,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깐, 마태복음 15장 29-39절입니다. 데이비스와 앨리슨은 많은 학자들이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이방인을 위한 기적의 식사로 보는 이유를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이는 앞서 유대인 5천 명을 먹이신 사건과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을 위한 식사와 이방인을 위한 식사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신학적으로는 매우 편리하지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구절의 지리적 표현은 너무 모호하고 모호하여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 계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치유를 목격한 무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15:31)은 이방인들에게는 적절하지만,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예배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성구 색인을 찾으려면 직접 찾아보는 것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지리적 위치나 이 핵심 구절이 그 만찬이 이방인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만찬이 일어난 맥락을 통해 그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최근 이스라엘 국경 지역으로 가셔서 놀라운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15장 32-39절에 나오는 치유와 기적의 만찬이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믿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적절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4천 명은 온 땅의 사방에서 모인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남은 일곱 광주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의 완전성 또는 보편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선입견에 따른 추측일 뿐입니다.

사실, 문맥상 4,000명의 이방인이 음식을 먹었다는 견해에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행하신 사역이 예외적이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15:24 ).따라서 4,000명을 먹인 이 사건이 이방인에게 기적이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만약 그렇다면 마태는 왜 이 이야기를 포함시켰을까요?한 가지 이유는 마태가 마가를 따른다면 마가에도 이 이야기가 있지만, 마태는 역사적 동기뿐만 아니라 신학적 동기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구절의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도널드슨 등이 시온 종말론이라고 부르는 것에 부합하는데, 이는 흩어진 이스라엘이 치유를 위해 시온산에 모이고 큰 잔치를 벌이며 이사야 35장 5, 6절과 같은 구절에서 다른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묘사합니다.다시 말해, 마태는 이 기적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종말론적 축복에 대한 구약의 예언적 이미지와 연결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예수님을 모세와 연결시킬 가능성을 더 높여줍니다. 모세는 산과 기적의 만찬을 통해 시나이 산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구약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셨음을, 모세를 통해 베푸신 과거의 축복과 선지자들을 통해 예견된 미래의 축복을 모두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율법과 선지자의 궁극적인 성취로서 예수님의 역할을 강조하는 복음서에서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마태복음 자체의 이야기에서도 두 번째 기적 만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는 독자들이 이 사건에서 배워야 할 교훈, 즉 예수님의 긍휼, 부족한 자원으로 큰일을 행하시는 능력,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종말 만찬의 예고 등을 강조하기 위해 두 번째 기적 만찬을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16장 5-11절에 나오는 두 기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또 다른 교훈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 진리, 그리고 우선순위 대신 육신의 필요에 몰두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5장의 이 주요 구절들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진실하지만 결함이 있는 믿음을 다루십니다.

15장 1-20절에서 정결에 대한 논쟁이 나오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매우 느립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불쾌감을 느꼈을까봐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은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식물이 아니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15장 12-14절에서도 제자들은 진정한 정결은 내면에서 나온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데 매우 느립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14장 15-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이해했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13장 51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진정한 지식은 상당히 심화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나머지 두 부분에서는 제자들이 사람들의 필요를 참을성 없게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여인의 거듭된 간청이 마음에 걸리지 않아 예수님께 그녀를 내쫓으라고 요청합니다(마태복음 14:23). 그리고 14:33에서 그들은 식량이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고자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8:5-13에서 다른 이방인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자비로운 응답과 14:13-21에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무리를 먹이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잊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연민과 기억력 부족을 통해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빈약한 자원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궁핍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연민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마태복음의 바로 다음 부분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마태복음 16:8). 그리고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다시 한번 왕국의 능력을 일깨워 받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대한 간략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14장 36절까지의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13장 1-52절의 비유에서 강조하신 복음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아직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12장 1-45절에서 그들의 궁극적인 비방을 강조했습니다. 요한의 살해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사건(12장 14절, 14장 10절, 17장 12절)이지만, 13장과 14장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12장에 비해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재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15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비난하기 위해 돌아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이방 지역으로 물러가셔서 주목할 만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십니다. 그런 다음 갈릴리 호수 근처 지역으로 이동하여 추가적인 기적과 또 다른 기적적인 먹이를 베푸십니다.

이 장의 사건들은 바리새인들의 끊임없는 완고함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율법의 성취자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15:1-9), 무리를 가르치시고(15:10-11),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설명하시면서(15:12-20) 사실상 5:21 이하의 공식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즉, "너희는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비록 바리새인들은 이 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이 먹지 않겠다고 한 빵 부스러기를 배고프게 받아먹던 가나안 여인은 이를 환영했습니다.

15장 28절에 나오는 그녀의 큰 믿음은 8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백부장은 종말론적 만찬에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기적들과 만찬은 자비로운 기적 행자이자 인내심 많은 교사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힘차게 전진하지만, 폭력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11:12. 논쟁은 계속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칩니다. 제가 너무 빨리 말했는데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